

우리는 모두 최고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성경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합니다. 그리스도인(Christian)이면서도 자신의 정체성과 예수님을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로 보고 듣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이름’의 변화가 아닌 ‘인격’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환경’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이 바뀔 뿐입니다. 추상적으로 믿을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인 관계에서 바라보고 생각하십시오. ‘거룩한 형제들’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늘의 거룩한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과 목표를 바라봅니다.

‘거룩함’조차 욕망이나 야망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조차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잇을 때, 거룩한 사명조차도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본의와 본심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랑’의 동기를 잇고, 법령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Fix your thoughts on Jesus)! 예수님께 우리 시선과 생각을 고정할 때만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볼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시 62:5). 예수님을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지만, 바람을 바라보면 물에 빠지게 됩니다(마 14:29-30).

나는 예수님께 시선과
생각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 ①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② 지금 내 시선이 고정된 곳은 어디입니까?